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로 앞장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주관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2000년도 청지기 훈련

온 교회가 모여 말씀앞에 복종하고
기도하는 회복의집회로

1월 26일, 27일 저녁 7시 분당

2000년도 청지기 훈련이 이번주 26일(수)과 27일(목) 양일에 걸쳐 저녁 7시부터 분당에서 거행된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자!'는 주제로 열리는 금번 청지기 훈련은 온 교회가 하나되어 말씀 앞에 복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회복의 집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청지기 훈련에서는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충청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총 가운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할 예정이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26일(수)	27일(목)
19:00-20:00	수요 II 예배 (강의)	강의2
20:00-20:30	기도회1	기도회2

전반기 장학생 신청 다음주일(30일)까지

2000년도 전반기 장학생 신청이 다음주일(30일)에 마감된다. 해당자들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자질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특히 2월에 자격이 나오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미리 제출하고 성적표만 추후 제출해도 된다.

한편 각 부서에서는 경쟁적인 추천을 삼가고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추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신청자들도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신청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행여라도 부당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 차원에서는 신청자들을 위해 적극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음주일은 선교주일 이어지는 '성령행진' 온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로

다음 주일(30일)은 선교주일이다. 선교주일을 맞아 훈련의 모든 성도들은 먼 곳에 나간 선교사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온 성도가 선교사임을 명심하면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동역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하겠다. 이번 겨울에도 7개교로 떠나는 70여명의 선교단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바, 성도들은 이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성령행진'이 기록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심령을 새롭게 찬양을 새롭게! 제4회 전국찬양대원 성악강습회 19일부터 22일까지 은혜 중 마쳐



일반찬양대원과 독창자들을 위한 제4회 전국 찬양대원 성악강습회가 지난 19일(수)부터 22일(토)까지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성악의 이론과 실재를 중심으로 열린 금번 성악강습회는 강사들을 더욱 전문화시키고 실기시간을 늘림으로 참가자들의 필요에 더욱 부응하는 실속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제주에서 강원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250여명의 참가자들 중에는 단테로 등록한 성도들이 많았으며, 연명중도 중학생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우리교회에서도 약 20여명의 성도들이 등록하여 수강하였다. 찬양위원회는 강습회가 거듭될수록 모든 진행과 내용이 알차게 성숙해가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 강습회를 통해 한국교회에서 날로 영성적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단에 단기선교단 파송 사랑의 의술 통해 복음전하기 3인의 단기 평신도 선교사도 함께 1월 29일 출발

수단 단기선교단(단장: 엄필성 장로 외 7인의 단원)이 1월 29일 수단을 향해 출발한다. 수단팀은 작년 10월 중 팀이 구성된 이래 3개월간 매주일 진행되는 기도모임과 월별로 진행된 금요철야 등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면서 준비해 왔다. 수단팀은 현지에도 도착하는 대로 의료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김영대 선교사가 사역해 오던 성경 및 신학교육 사역도 도울 예정이다.

한편 권영일, 박수인, 추은희 등 3인의 단기 평신도 선교사들도 함께 출발하는데, 이들은 1년간 현지에서 머물면서 에스라성경학교 및 외국어학원 사역, 어린이 사역, 의료사역 등을 감당할 예정이다. 단기선교단 및 평신도 선교사 단기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한 성도들의 뜨거운 중보의 기도가 요청된다.

시작되는 겨울수련회 금주에 중등1,2부

영.유아.유치부.중등3부는 일정조정

2000년도 교회학교 겨울수련회 및 성경학교의 문이 중등1,2부를 시작으로 열린다. 중등1부(주제: 그리스도 안의 세 피조물/강사: 김필수 목사)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중등2부(주제: 교회와 우리의 생활/강사: 엄현일 목사)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각각 총련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성도들은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로 변화되는 은총을 얻도록, 그리고 교사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한편 2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던 유아부와 유아부, 유치부의 겨울성경학교 일정은 한 주 미뤄져 2월 21일(월)과 22일(화)로 변경되었으며, 중등3부도 기도원에서 진행되는 금요철야집회를 고려하여 2월 24일(목)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것을 하루 앞당겨 23일(수)부터 진행하기로 하였다.

교회학교 학생 심방중 영적 자녀의 가정을 찾는 귀한 발걸음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 당부

매년 1월에는 교회학교 각부서의 교사들이 매우 분주하다. 새로 맡게 된 학생들을 좀더 잘 이해하여 섬기기 위해 학생들 가정들을 일일이 심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중에 학생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하는 교사들, 많고 가까운 집들을 찾아 두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학부모와 상담하는 교사들, 심방을 꺼리는 가정 앞에서 무겁게 발걸음을 돌리려 하는 교사들, 힘겹게 전화 한 통과 결코 나서는 건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교사들, 이 모든 일꾼들의 섬김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1월이다.

이들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심방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은 적극 협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임시당회

시간: 오늘 5부 예배후

장소: 당회실

임시제직회

시간: 오늘 찬양예배후

장소: 분당

남녀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사

남녀전도회 각 지회에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아래의 사항에 따라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다음주일(30일)까지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소: 선교관 4층 전도위원회실

준비서류: 시산표 2부, 금전출납부, 원장

회계담당자 실무교육

· 일시: 30일(주일) 15:00

· 장소: 교육관 307호

· 대상: 각 위원회 산하기관 회계 실무담당자
(교회학교는 총무장로, 회계, 부회계)

· 강사: 차신득 장로



김창임 목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

(살후 2:13-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날마다 발전하여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날로 최악이 관영해져만 가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는지 모르는 불안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강하다 하시는 분이 혹 계시는지 몰라도 인간은 모두 다 약합니다. 약한 인생이 먼 여행을 갑니다. 나 혼자 가기에는 위태롭습니다. 나 혼자 가기에는 외롭습니다.

이런 세상에 좋은 동반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이 있는 분이 나와 같이 가 주시면 그 길가는 나 그대의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좋은 위로자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자가 없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좋은 위로자가 있는 자는 행복스럽고 또 위로자가 없고 동행하는 분이 있어도 약한 사람이 동행하면 오히려 피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험한 인생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좋은 위로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힘있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 부자이신 분이, 사람이 많으신 분이 나를 돌아보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이 세상에 있느냐 물으면 사람 가운데는 없습니다. 힘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래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놓고 손해가 나면 발로 차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다 도와준다고 그래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부자가 못되니 도와 줄 마음은 있으나 도와 줄 재산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은 힘이 있고, 지혜롭고 부자이고, 사람이 풍성하고, 영원히 나와 같이할 위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한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16-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려운 세상이나 우리 혼자 두면 안 되겠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보는 사람은 행복스럽고 하나님 앞에 책망과 정계를 당하는 자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불행합니다. 고난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고난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물리침을 당한 자는 악마로부터 격려했을 당하고 결국 악마의 이용물이 되고 맙니다. 땅 위의 육체에 눈이 아무런 반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습니다. 돈에 욕심이 생겨서 거짓말하고 돈에 욕심이 생겨서 현금 바칠 것 못 마치고 돈에 욕심이 생겨서 남에게 은혜를 가지면서 빼앗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길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길이 끊어진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 자주 생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1.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좋은 소망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기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위로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위로의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누가 받습니까? 믿고 기도하는 자가 받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할 때에 모든 어려운 일이 오히려 기적을 보는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의 물결이 출렁거립니다. 건널 다리가 없습니다. 타고 나갈 배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인들이 말과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애굽의 마병들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리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기적을 보여 주신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아브라함이 하라발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 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홍해에 가르쳐라.” “에.” 이어서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무서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홍해 물이 출렁출렁출렁 갈라집니다. 아아 갈라집니다. 바람이 계속 불니다. 질척질척한 홍해 바닥이 경건에 알맞도록 바릅니다. “건너가라.”

이러한 일 만났을 때에 우리들마다 건널 동안 이와 같은 기적을 보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편안함만을 누리려고하는 꼴에도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들 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온갖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2.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어떠한가

(1)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아무것도 겁낼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어찌하리까?”라고 물어보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꿈이라도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됩니다. 오늘날까지 성공하는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해도 내가 했거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배를 맞 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열 재앙으로 승리한 것은 모세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도 하나님이 건널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 에 순종했더니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신자들이 순종하면서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믿고 못하고 의심하고 순종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원망하고 불평하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2)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알고 잘못했든지 모르고 잘못했든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천군에게 끌려가더니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요 거짓말로 숨겨두면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고 배를 맞습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안한 마음이 오 때에 담대해집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담대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이 불안이 치면 담대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 용서받으 하나님 이 함께 하여 주심을 믿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시 읽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충헌의 성도들이여, 어떤 일이 생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영육간에 도사람이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 결 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좋은 소망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기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면 그 마음 속에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싶지는 않겠지요? 아니면 천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위로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위로의 복입니다. 이 위로의 복은 땅에서부터 누리시며 천국에서 면류관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



김성관 목사

조화를 이루는 교회

(빌립보서 2:1-8)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하나가 되는 교회는

조화를 이루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자들이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히 기도에 힘쓰니라”(행 1:14). 이 말씀은 하나가 되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란 다툼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히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행 2:1). 하나가 되는 교회는 한 곳에 모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질라지는 것이 저와 저희 보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행 2:2-4).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교회가 하나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성도들이 한 곳에 오고 전히 기도에 힘쓰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하나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될 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히 힘쓰니라”(행 2:41, 42). 성령이 역사하시니 사랑의 떡을 떼는 교제, 중보기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힘들은 것과 다툼이 없습니다. 남을 지적하거나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에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신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낳아 두라 하 계사니라”(행 2:47).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찬미, 간증, 전도가 있으며 구원 받는 자가 나뉘다 더하였습니. 구원 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가 하나되는 교회 곧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이러한 교회를 원했습니다. 빌립보교회가 다툼이 아니라 분열되지 시작하자 바울 선생은 빌립보교회를 행해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행 2:1-8)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훈이나 줄음이 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고 합니다(빌 2:2).

교회와 하나가 되려면

빌립보서 3절 말씀은 교회가 하나되

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듯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려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도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고전 3:3). 이 다툼 곧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자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툼이 생기면 남의 잘못이 보이고 그 잘못을 쌓아 놓게 되면 남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이, 미움이 있는 곳에 시기가, 시기가 있는 곳에 질투가

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 나라이(약 3:14-16). 다툼과 허영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어 있는 영광을 추구하면 언제나 최고의 대접받기를 원하며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주제를 한다면 오히려 남을 비릴 것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친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며 자기 영광 곧 허영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은 점점 멀어져 가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 할 뿐인

것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랍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자기 생명을 드리고 그 몸을 따르려거든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이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높은 명에를 추구하였습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없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자랑하였습니까. 전설로 내가 죄인이라고 공공 앞에서 비통해 하며 죄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죄인중에 죄수”라고 고백합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 하였노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알고 싶지 않은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하는 새로운 때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본의 뜻대로 만물이 시작하십니다. 매 일매일 흥쾌가 갈라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본받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도 죽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면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먼저 용서 해주셨으므로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나보다 낫게 여기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자가 어떻게 진정으로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이는 잠시 속이는 것일 뿐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패진 자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솔로몬의 말한 바와 같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를 칠 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 감사, 기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나를 완전히 죽일 수 있습니다. 부활과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여러분들에게 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ㄹ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흥왕한다고 해도 서로 원수가 되어 험뜯고 싸움이 시작되면 비가 대장이 되어버립니다. 허영이란 비어 있는 영광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 댓가로 목마른 역술을 합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야 하는데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스스로 인격자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조화를 이루는 교회는 허영이 없는 교회, 비어 있는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없는 교회입니다. 비어 있는 영광 곧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나와 같이 살아라, 존경받고 살아라, 남에게 떡을 끼쳐라. 인간은 이와 같은 마귀의 속임이 넘어가 늘 마귀에게 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오신 예수님

이로 인해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욕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와 교만과 부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갈 5:19-21).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묵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전리를 거스려 거짓되게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며 정욕적

의식이 되고 맙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남을 낫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남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좋은 면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골 2:20).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다보니 자기 일을 잘 돌아볼 줄 압니다. 그러나 전설로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일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빌 2:5). 그리스도는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 앞에서 합구하면 겸손이라고 착각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쓰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유교적 전통에 의거한 마음을 갖거나 존경하는 사람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다툼과 허영이 없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들은 인간의 도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말씀은 미움을 겸손으로 대신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버려 이기적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고라 명합니다. 그리스도

수단으로 향하여

박 수 인 (수단 단기 평신도 선교사)



△ 사진 왼쪽부터 (권영림, 박수인, 추은희)

저 박수인과 권영림, 추은희 3명은 1월 29일부터 1년간 수단의 단기 평신도 선교사로 명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수단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회교국가로 40년간의 내전과 오랜 기근으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최근 서방의 압력으로 군정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많은 전통과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모슬렘이 강해서 외국인에 의한 전도 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수단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 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이슬람의 세력들이 거세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으며,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이슬람교육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이란 나라는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의 것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저희 삶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은 김영대 선교사님께서 하시던 아랍어 학교, 예즈라 성경학교, 수단 전도대와 하조세 회회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아랍어 학교는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수단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의 제공과 언어 훈련을 하는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 예즈라 성경학교는 수단 현지인들의 신학교육을 담당하며, 수단 전도대는 청소년과 캠퍼스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권영림은 현지인 컴퓨터 교육, 박수인은 통역과 초중학교 사역, 추은희는 의료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의 군사적 저지력을 위한 지원사격과도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아래의 기도제목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1. 성령 동반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2.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3. 팀원(권영림, 박수인, 추은희)의 하나됨을 위해서
4. 현지에서의 사역(아랍어학교, 수단전도대, 예즈라 성경학교)을 위해서
5. 현지인들과의 협력사역을 위해서
6. 언어(아랍어, 영어)의 진보를 위해서
7.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들이 생기도록
8.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도록

외선부 람방-몽골팀



지난 주일 외선부(외국인 선교부)의 몽골팀을 방문했다. 우락 부락 해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처음에는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이내 찌익 웃는 모습에 금방 말을 걸어보았다. 이렇게 온지 4년이 되었다는 밧다와 솟다 부부는 외선부 초기때부터 같이 해온 신실한 성도들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는 질문에 일자리가 없어 놓고 있는데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한국말로 잘 안되니까 해서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밧다는 몽골인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에게 '이 사람들 이 예수님을 믿어요. 나도 믿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세요'라고 말했고 한다. 성경책을 보면 불수록 그 안에 해답이 있었다고 말하는 그들. 이제 그들은 이제 기도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 그들과 함께 있는 친구들이 한줄 늘기 시작하자니 이제 몽골팀은 매주 50명정도가 출석하고 재직 인원이 200명가량 된다고 한다. 몽골인 대부분은 경기도 광주, 의정부, 경안동 등지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날마다 해가 거듭할수록 몽골팀이 성장하는 이유를 몽골팀 교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답변하셨다. 미국땅에서 병들고 힘들 때 밧다가 주고 의뢰를 때 함께 해주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외선부 교사들이라. 밧다와 솟다 부부, 통역을 담당하는 난사와 그리고 몽골팀 교사들 그들 모두 헌신같이 하나님께 몽골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사는 그들이 마냥 부럽기만 했다. 몽골인들을 만나서 우리 모두 반갑게 '자인베노안녕하세요'라고 웃으면서 인사하면 좋겠네요.

배에 단한다.

기후: 강력한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크며 겨울이 10월 중순에서 3월까지로 길며 영하 30~4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추우며 여름은 짧다.

언어: 90% 이상이 몽골어 즉 할아 몽골을 사용. 정치: 1991년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돌아서면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작년 총선 결과 공산혁명당이 몰락하고 민주 연합당이 승리하면서 내각인물이 개혁적인 30대와 40대로 바뀌었다.

경제: 중앙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기 과정에서, 한달 평균 월급이 255~505원이다.

문화: 몽골말에는 상대방을 부를 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너와 당신을 의미하는 두가지말이 있다. 우리말에 너는 '네', 당신을 '당'이라고 부르는데 친해지기까지는 절대 '네'라고 부르지 않아야 한다. 몽골인들은 수대치라고 하는 차를 즐기며 마유주(말유유)와 말고기과 양고기를 주식으로 한다. 전통의상인 '델'은 주로 명절때 입는다. 식생활: 미전도 종족에 속한다.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까지 3~4년밖에 되지 않았다. 과거에 산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지만 뿌리 내리지 못했고 대를 이어오는 기독교인이나 집안은 찾아볼 수 없다. 몽골 선교를 통해서 주변국인 중앙아시아, 중국, 러시아, 한국, 중동 등으로 쉽게 사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어로 배우는 전도 용어

예수님 믿으세요: 이수스트 이트게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르트친 예렌

탄드 하이르테,

(영접성 기자)

저는 몽골에서 온 난사입니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나 몽골 외국어대에 중국어를 전공했고 1997년 10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은 몽골팀에서 통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일하던 직장에서 사장님의 전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98년 12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하나도 몰라 듣지 못했던 제가 교회다니지 3개월 정도 지나자 한국 설교를 알아듣기 시작했고 인기가게도 급속도로 한국말이 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99년 3월말 어느날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갔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기도 제물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기도 중인데 나무로 만든 더러를 보아주셨는데 그 환상이 지워지지 않아 계속 생각하다가 기도하고 자는데 공속에서 또 그 더러를 보았습니다. 다시 그 의미를 알려달라고 간구드렸습니다. 공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더러는 나를 의미하고 그 양쪽 끝은 한국과 자국을 의미한다고 너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나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에 춘천교회에 통역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통역일을 맨처음 시작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통역을 하면서 매순간 열리는 마음으로 통역자리에 앉았고 그 과정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행복한 일은 제가 전도대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는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된 자가 되기로 합니다.

몽골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늘 말없이 수고하시는 외선부 모든 분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드 린 니

다.



몽골에 대해 배워봅시다.

수도: 울란바토르

국토: 북쪽의 러시아와 동서, 남쪽의 중국사이에서 있는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에 위치하며 한국 면적의 17

읽어 생각하는 글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내가 학창시절에 읽은 소설 가운데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슬픈 사연의 이야기가 있다. 제목도 작자도 잊어버렸지만 그 내용은 항상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어느 전투에서 전상을 입은 상이군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두 팔, 두 다리를 잃은 토막 인간이 그의 아내의 보호를 받으며 누워서 살다가 건디다 못해 어느날 아내가 외출한 틈에 잔디밭에 굴러 내려가 깊은 우물에 빠져서 자살한 이야기였다.

나의 뇌에서 사라질 줄 모르는 토막인간!

오랜 병상에서 정양하고 있으면서 수족이 불편하여 자유롭게 기동도 못하고 출입할 수 없는 육체적인 결함을 몸소 겪으면서 나는 이 세상 모든 환자라는 한자의 불편과 슬픔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는 자체가 문제다. 이것도 외국 어느 상이군인의 이야기. 두 팔, 두 다리가 그 위에 두 눈까지도 잃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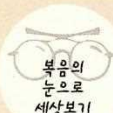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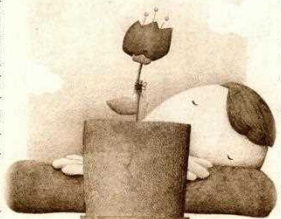
체중에 성한 부분으로 허가 남았음을 자각하고 그 때부터 허로 점자를 익히기 지금은 공산전령의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니 그 상황이 어떠한가. 이보다 더한 전도의 방법일 있을까.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근자에 와서 생생하게 나의 기도속에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사랑과 인내와 감사가 부족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부끄럽고 슬프게 생각했다.

그러한 사람에 비기면 시력이 약하여 책을 못읽는 다거나 수족이 지리고 아파서 출입을 자유롭게 못하

는 상태쯤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인간의 조건이 모두 허물어졌을 때 누구를 모으며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 외에 이더로 누구에게 갈 수 있단 말입니 까.』

- 임옥민 목사 에세이
『새 손을 드십시오』 중에서 -

이빈 주의 복음의 눈은
세상의 미디어들에 주목했습니다

영화 '거짓말' 상영에 거센 역풍, 음대원, 관객 설문조사 87.9%가 '상업적 음란물', '시인단체' 등지 강력추구, 개봉 이틀간 20만명 관람. 1월 10일 국민일보.

10대 매매춘 뿌리뽑자. "음란가 대부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할 것" 10대 매매춘 뿌리뽑기 위해 청소년성도 병행.

『청소년 성 보호법』 통과해 큰 성과. 1월 15일 조선일보

『마이라 텍사스』 철거, 호텔, 대항사가 새운다.

원곡, 김음동 일대 유흥위락지구로 조성. 1월 12일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 세상도 분명 음란과 향락에 대해 단호하고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의 대치는 도덕이 아니라 은폐일 뿐입니다. 매매춘을 뿌리뽑자 가 아니라 10대 매매춘을 뿌리뽑자는 것이며, 사창가를 없애자 가 아니라 조금 원곡하게 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하더라 또다른 신문 페이지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특집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술리? 심각한 건 술?』 육망의 환각자대로 유흥.

무라카미 류 소설 4권 잇따라 나와. 1월 15일 조선일보

카주라호에 가면 도덕을 혹은 술리 따위, 잠시 잊어먹자. 마하트마 간디는 "다 부식시키고 싶다"고 결명했지만 적어도 고결한 마하트마가 아닌 우리네들은 아주 잠시, 그 너무도 관능적인 세계에 빠져봐도 무방하리라. 카주라호 사원에는 본능이 살아 숨쉬다. 위선적인 경건함 혹은 도덕을 모든 인위적인 굴레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1월 17일 조선일보 신년특집.

세상은 정확하고 명확한 객관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언제나 개성과 자유라는 명분의 양날을 번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복음의 눈은 명확한 것이며, 우리의 개성과 자유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는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분명한 복음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순교적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장대선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위철홍' 성도를 소개합니다



믿는 자매인 지금의 아내 (심순덕, 중등2부 교사)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믿음을 갖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인간이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주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감사생활을 한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새가족 집회에 참석하여 성경을 알아가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여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합니다.

'박원석' 성도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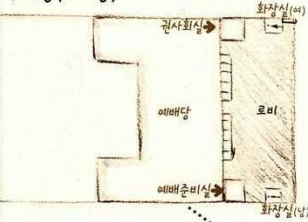
대학 다닐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사업주가 공장을 새로 짓는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일, 17년전 위막 기관에 아들을 잠시 맡겨 놓았는데 미국으로 입양시켜 버려 아들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동분 서주하며 다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고 자신의 마음만 커진 일 등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일들이 잘되기를 바라며 교회를 찾은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의 답변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형제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한옥성(새가족부 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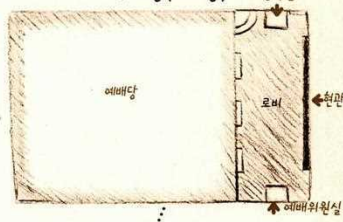
교회 안내 2

충현의 새가족들을 위해 오늘은 '본당'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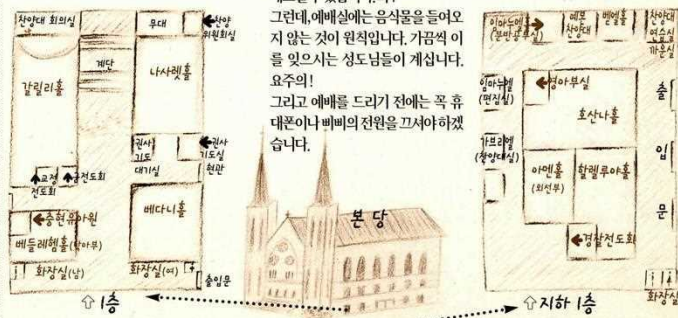
↓ 3층(예배당)



↓ 2층(예배당)



본당 2,3층 예배실에서는 한 번에 5천 7백명에서 6천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배드릴 수 있습니다. 와! 그런데 예배실에는 음식물을 들어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끔씩 이를 잊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주의!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목욕대나 배변의 전원을 끄셔야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용감한 시민과 용감한 신자

지난 토요일 오후 겨울의 날씨가 따뜻하게 포근한 바람이 피곤 후나의 일과를 잠시동안 이용하게 했다. 그렇지만 계획한 일이 있었기에 '이럴 땐 가끔씩 빠른 교통편을 이용하자'라는 생각을 타고 집으로 곧장 들어가는 순간 어떤 아저씨가 나를 밀치며 들어와 유난히 내 눈치를 보면서 앞으론 가더니 채 문이 닫히기 전에 살짝 칸으로 내리는 것이 아닌가. "어휴! 비스무리한 건데, 이거!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가방 깊숙이 넣어둔 지갑이 없었잖아. 혹시! 저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 따라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전철 옆이 받은 닫히고 있었고 어느새 나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는 손 사이에 끼여 다시 열어야 할 것을 기도했다. 간신히 내려보니 그 아저씨가 기둥 뒤에 숨어 있었다. "주여, 무서워요. 직책을 주세요." 전철을 갈아타려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았다. "아저씨, 전철 안에서 제 지갑을 꺼내 간 사람이 저 기둥 뒤에 숨어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자 어떤 아저씨가 도와 주었다. 그 아저씨와 함께 큰 기둥 뒤에 숨어서 내가 탄 전철이 출발하기를 기다리며 몸을 웅크린 채 벽에 붙어 서있는 소매치기에게 다가갔다. 그 사람은 꼭꼭두 자색으로 우리에게 잡혔다. 예상밖의 상황에 그 소매치기는 당황해 하며 곧 뺨뺨한 자세로 "알았어. 줄게. 줄다나!" 밀게 말하는 소매치기의 모습에 화도 났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안돼요. 아저씨, 저는 지갑 필요없어요. 안돼요. 경찰서로 가세요." 경찰서로 가자는 소리에 아저씨는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용서를 비는 아저씨 때문에 나는 고민했고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더 친절하게 경찰까지 갔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일곱분씩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던 사람, 가족도 거처도 없는 거기로, 그날도 집도없는 아주 잘꾸민 멋쟁이 신사분, 웅크린 채 자신의 죄로 순간의 공포에 떨며 숨어 있던 모습이 생각났다. 잠을 설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주여!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저씨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주일 찬양 예배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에게 용감한 신자에 대해 말씀 주셨다. "예수님을 전하라고요.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의 큰 약속이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종신은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고린도 후서 3장 2절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용감한 시민 덕분에 그를 잡았고 그의 죄의 댓가를 치르기 위해 교도소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셨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용감한 신자와 죄자의 사람에게 용감한 신자로 예수님을 전하자! 나는 이번주 그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처럼 내게 복음의 편지를 전할 수 있는 배달부의 자격과 이웃을 주셨다."

작은 사람 나눔의 재발원 분문 감사의 회복과 감격

이형주 (권사, 소망부 교사)

작년 12월 23일 오전 9시 30분 소망부 교사들은 교회를 출발하여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남사랑교회에 속한 재발원회와 효사랑로원을 방문하여 금일봉을 전달하고 왔다. 지난 번 센터 마을 재발원자들을 방문했을 때에도 마을 아픈 사연들을 (주 간중회)지에 게재했는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기사를 읽어보고 감동을 받아 어떤 분들은 그 분들을 위해 세 달과도 백만원을 원금이라 다시 한번 방문하였고 여러 기관에서 자라들도 좋은 일에 동참하였다고 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우선 돌봄없이 바라보기 힘든 장애인들이 많고 부모도 버림받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들과 버림받은 아이 사는 재발원회였다. 장서희 38명, 효사랑 노인들 8명, 기타 성구들까지 총인원이 57명이라고 했다. 교회도 재발원회 양로원도 모두 가 건물도 지어지 않았었다. 어느 교회도 전도회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와 식사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는 우리 가 간 날이 마칠 날까지서 모두들 점심을 먹고 있었다. 우리는 작은 방에 들

어가 잠깐 예배를 드리고 금일봉을 전달하고 성탄 축하노래도 한곡, 찬송가 한 곡을 위로와 함께 불러주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 목사님께서도 목이 마라 말을 잊지 못하였고 우리도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군인 단체에서 2 천원의 군인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그들의 손과 발이 마비되어 마리로 감겨주고 목욕과 주변의 환경 일도 도와준다는 것이다.

우리도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는지 우리 부지만 인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이 수없이 많지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왔음을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 건강할 몸으로 방문할 수 있을 해주신 감사,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드려도 후원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왔다. 그곳에 주지는 못하지만 마음 만이러도 항상 그들의 곁에 머물고 싶은 작은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자리잡은 것 같다.

가까운 이웃을 찾아서

사랑쉼터의 집

박용기(집사, 7교구 7지회 베드로전도 회장)



면 대중 목욕탕으로 간다.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곳"이란 뜻으로 사랑의 쉼터교회라고 했다. 김성희 목사, 청년시절 봉사활동 중 1급 장애인인 지금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인형 장사하던 어느날 장애인인 구원자와 하룻밤이라도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다는 소원이라는 말에 김성희 목사는 장애인인 고통을 이해하고 셋방을 빼서 허허 별관이던 지금의 장소로 91년 말 이사하여 터를 닦았다. 풍자장에서 건축부서리기를 주위보다 어금의 비빌 하우스를 손수 지어 92년 5명으로 시작한 식구가 지금은 남자 15명, 여자 13명의 장애인들과 9살만 딸, 2살난 아들 등 30여명의 대식구가 되었다. 없는 가운데서 기도로서 신자하게 된 장자 들보다는 사역에 지금은 경찰서, 동회 등 관공서에서 버려진 장애인들을 보내온다. 겨울이 오면 난방비가 제일 걱정이라며 요즘 그런 벨트 해체 운운하는 소리에 그런지 땅 주인이 계교장을 보내왔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믿음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한다.

99년 9월 베드로 7지회 회장인 임창식 집사의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제안으로 몇 곳을 탐방 끝에 지금의 사랑의 쉼터교회를 만나게 되었다.

"너희의 유언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고후 8:14). 짧은 시간이지만 저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심정으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사랑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들이 평강으로 받아 누리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나와 우리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재도 (9교구)



하나님께 감사와 영감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년에 대해 여러 말로 인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역사의 시간을 평가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영생복과 천국을 소유하였다는 그로써 감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틀에 얽매어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죄에 비례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되고 여전히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있는가 라는 것을 반복해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17 말씀처럼 저의 지난 날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죄와 허물의 짐을 짊어지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왔었다. 세상 근심과 걱정을 안고 전전긍긍하며 세상욕망과 더불어 영혼이 죽어가는 나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여 허튼바를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윤식 권사님을 알

게 되고 그분의 전도와 인도로 충헌제 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충헌절도 기도원과 갈릴리움에서, 새벽기도에배서 주님 앞에 무릎꿇고 통회자복할 때 무명한 눈물로 전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처와 딸, 아들도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온가족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줄이야 꿈엔들 생각하였겠습니까.

지금도 장년부와 청년부 그리고 대학부에서 또한 구역모임에 이르기까지 말씀 배우고 봉사와 섬김에 서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감사함은 하나님의 돌임입니다. 주님이 제 곁에 항상 계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박윤식 권사님을 사용하셨고 그분의 분이 뜨겁게 우리 온가족을 하나님께의 백성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당회장 김성관 목사님의 설교에서 주님 그리스도인인 말씀 안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주 예수님을 온가족이 만날 수 있고 동행하며 함께 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